

時調에 나타난 山水自然의 遠望과 그 美的 性格

최 동 국 *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조 士인들이 산수 유람을 하는 중 산수의 감상 태도로 중시한 遠望의 시선과 표현 원리 및 기본적인 미적 범주를 고찰한 것이다. 遠望의 '遠'은 물리적 거리이면서 심미적 거리이다. 이 원망은 산수 전체를 眺望하면서 산수의 氣勢 및 奇妙와 曲折함을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산수 자연의 物象의 국한성을 벗어나게 되고, 정신적 초월과 고양을 얻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산수자연의 무궁한 변화와 造化의 이치를 感得하기 위함이다. 원망의 원의 시선은 관조자의 마음을 恬靜하고 虛靜하게 한다. 이 시선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계기를 만든다. 원망은 산수의 유한한 형질에서 무한의 세계로 향하게 한다. 이 무한 속에서 시가 창조를 이루는 의경을 생성시킨다.

이 원망은 유한의 속박으로부터 무한의 자유한 경지로 비약해 가는 審美眼이다. 원망은 현실적 가치, 관념, 인위로부터 초월하여 인간 본래의 자연성과 자연이 합일케 되는 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주관적인 감정과 외재하는 산수 자연의 무한함과 조화통일시키는 안목이다. 즉, 관조자의 意象과 物象과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원이다.

이 조화의 세계를 형상화시킴에 있어서는 사물의 외형의 집착을 꺼리고 표현 기교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하고 자연스러운 형상을 이상적인 표현법으로 삼는다. 원망은 관조자의 심리 상태를 恬靜하게 하기 때문에, 산수와 인생의 양쪽 감정이 합일하는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속과 초월한 경지인 자연 속에서 더 깊고 넓은 有情의 세계를 창조하게 된 것이다. 그 세계를 형상화하는 방법이 高遠, 平遠, 深遠의 三遠法이다. 이 표현법에 의해 풍격, 恬淡의 미가 성립된다. 열답은 현실적 갈등에서 정신적 해방과 산수자연의 묘리를 맛볼 수 있게 한다.

핵심어 : 山水, 遠, 遠望, 曠達, 沖融, 表現技巧, 恬淡, 風格

* 인천대학교 교수.

I. 序論

山水自然을 대상으로 한 시조, 즉 산수시 또는 강호시라 일컬어지는 시가군이 조선조 시가의 미의식과 미적 특성을 단적으로 드러내었다고 보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특히, 산수자연은 심성수양의 공간으로 인식하면서 인생의 안정을 기하는 동시에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으로 인식했다. 본고는 그 가운데 산수의 樂을 누리는 시조를 통해서 자연의 관조 방식 및 표현 원리와 기본적인 미적 범주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 일단을 賞自然의 방식 중 '遠'의 관조 방식과 함의를 석출함이 본고의 목적이다.

II. 遠望

遠望의 '遠'은 물리적이면서 심미적 거리이다. 현대시론에서 말하는 미적 거리는 이와는 좀 다르다. 미적 거리란 개인의 주관이나 실제적 관심을 버린 허심탄회한 마음의 상태이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흔히 분리, 초연, 자기 멀 각이라고 한다. 이를 벗어난 거리를 정확하게 개념화하고 있지 않지만, 부족한 거리와 지나친 거리를 설정하고, 전자는 시적 상관물 없이 감정을 과도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시적 체험의 미적 성격을 파괴한다고 보고, 후자는 시인이 제재에 대하여 지나치게 심미적 거리를 두어 결과적으로 감정의 지나친 억제로 인해 관념시가 되게 하거나 분열적인 시가 된다고 하여 양자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¹⁾ 결국 심미거리는 시적 상관물을 매개하여 관념에 흐르지 않도록 거리를 조절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물리적 공간거리를 전혀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거리에 한정된 것 같다.

고전 시가에 있어서 미적 거리로서의 遠에 대한 논의는 畫論에서 시작한

1) 김준호, 『詩論』, 삼지원, 2008, 328-336쪽 참조.

것이다. 蘇軾이 王維의 詩畫를 두고 '摩詰의 시의 맛은 詩中有畫다. 마힐의 그림을 보면 畫中有詩다.' 이는 시와 화가 심미의상을 창조하는 데 있어서 공통된 요구라고 했다. 그래서 그는 시와 그림은 본래 일물로 보았다. 소동파가 왕유의 시를 보고 평한 '시 가운데 그림이 있고 그림 가운데 시가 있다.(詩中有畫 畫中有詩)'²⁾의 詩畫一律³⁾의 인식에 의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조선조 士人들은 산수자연을 유람하고 노래한 작품들은 遠의 意境을 흥취 있게 형상화하였다.

天末歸雲千萬峰
碧渡青嶂夕陽紅
携節急向高臺上
一笑開襟萬里風

아스라이 나는 구름 첩첩 봉우리
파란 물결 푸른 산에 석양이 붉다
지팡이 끌고 서둘러 높은 대에 올라
한번 웃고 옷섶 헤치니 만리바람 시원하다

(夕霽登臺)⁴⁾

나는 구름과 첩첩 봉우리, 파란 물결, 석양을 높은 대에 올라 遠望하고, 만리풍을 맞으며 천국을 조망하는 데서 호연지기, 즉 퇴계의 曠達한 意境을 읽을 수 있다. 이 광당은 높은 대에 올라 아스라이 나는 첩첩 봉우리의 원망과 파란 물결, 푸른 산, 석양의 近看을 동열화하여 관조하고 있다. 퇴계의 이 高臺上에서의 원망은 평지에서 바라볼 수 없는 산수의 勢 및 造化의 妙와 曲折함을 볼 수 있게 된다.

一曲은 어디미오 冠岩에 히 비친다

2) 蘇軾, 『東坡題跋』下卷〈書摩詰藍田煙雨圖〉, 『중국미술사대강』, 葉朗(이건환 역) 321쪽 재인용.

3) 도남학회, 『도남학보』제 18집, 2000, 최진원, 시조단상 중 시화일치론의 논의가 시도되었음.

4)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퇴계집』II, 경인문화사, 1976, 43쪽.

平蕪에 니 거드니 遠山이 그림이로다
松間에 綠罇을 노코 벗 오는 양 보노라 (一曲)

울곡의 고산곡가 중 一曲이다. 초장, 중장, 종장 모두 원망의 意境을 형상화했다. 초장은 올려다 보는 遠이고 중장은 가까운 곳에서 멀어지는 遠이며 종장은 석담 너머 현실을 보는 遠이다. 심미적 시선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하는 산점 투시는 自然의 造化를 표현해 내는 방식이다. 산수화의 표현 원리에 적용하면 초장 고원은 청명하고 중장 평원은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다. 종장의 심원은 경색이 흐리다. 고원의 勢는 우뚝 솟아있고 평원의 意는 沖融하고 심원의 意는 중첩된 의경이다.⁵⁾

水國의 7올히 드니 고기마다 슬져 일다
달드러라 달드러라
萬頃澄波의 슬7지 容與호자
至匆應 至匆應 於思臥
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도타 (漁父四時詞)

고산이 積謗으로 가득 찬 현실에 대한 초월로부터 이루어진 自適自由의 심리 상태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퇴계와 울곡, 고산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원망은 曠達, 沖融, 自由自適한 심리를 기저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태 중의 하나가 원망의 의미 범주이자, 원의 관념이다. 이 원의 관념은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것인데, 그 안정은 바로 산수자연 속에서 얻어지는 안정을 이상적인 심리로 삼았다. '산수의 형상은 인간에 대해 유정한 것이어서 자기 감정으로써

5) 郭熙, '…高遠之色清明 深遠之色重晦 平遠之色有明有晦 高遠地勢突兀 深遠之色重疊 平原之色沖融而飄縹渺妙'

이에 대응하게 되는데, 산수와 인생의 양쪽 감정이 서로 합일조화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세속을 초월한 경지이며 자연 속에서 더 넓은 有情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⁶⁾

이처럼 조선조 시인들은 상자연에 있어서 원망에서 오는 심리와 경계를 중요시하였다.

士가 금강에 가서 그저 풍광만 보고 산수의 취의를 깊이 파악하지 못한다면 백성이 날마다 사용하면서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홍장(인우)과 같은 이는 가히 산수의 깊은 취의를 안다고 이를 만하다. 하나 단지 산수의 취의를 알뿐 '도체'를 보지 못한다면 산수를 이는 것이 귀할 것도 없으니 홍장의 앎이 어찌 여기에 그치겠는가.⁷⁾

目見而已는 산수의 풍광만 보고 즐기는 遊目の 賞自然인데 율곡은 이에 불만을 표시했다. 당시 시인들은 주로 目見 즉 遊目の 세계를 형상화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던 것 같다. 이는 인간에게 있어서 감각적 파악을 중시한 산수 유람이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홍장과 같은 상자연은 이목에 이끌린 것이고, 그것은 사물의 형질에 이끌려 기교에 흐르는 노래를 지칭한 것 같다. 그래서 율곡은 道體를 지각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산수자연 個個의 경치의 집착에서 벗어나 원의 관조 방식을 통하여 산수 경물의 유한성을 넘어 무한으로 이끌어 자연의 실상을 볼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율곡은 정원묘선 총서에서 자연스러운 가운데 깊은 묘취가 있는 시를 풍격 제1로 삼았다. 그가 말한 도체의 자각은 산수의 의경을 자연스러우면서 묘취를 깃들게 하기 위함

6) 徐復觀 (權德周 外 譯), 『중국예술정신』, 東文選, 1990, 385쪽.

7) 李珣, 『拾遺』卷十三, 『洪恥齊 仁祐 遊風嶽錄跋』, '士之遊金剛者 亦 目見而已 不能深知山水之趣 則 與 百姓日用 而 不知者 無別矣 若 洪丈 可謂深知山水之趣者乎 雖然 但 知山水之趣 而 不知道體 則亦無貴乎知山水矣 洪丈之知 豈止於此乎'

이다. 이러한 산수의 의경은 원망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도체를 본디함은 산수의 형상으로써 도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한 그 도의 세계로 들어가 유연한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이자 시간을 말한다.

... “이 산에 올라眺望하기에는 가을날 서리 온 뒤가 좋고, 혹은 오랜 비가 새롭게 갠 날이 좋은데, 주군수도 비에 닷새 동안 막혀 있다가 개자 곧 올라갔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었습니다.” 하였다, 내가 조용히 그 뜻을 깨달았으니, 처음엔 답답하게 막혔던 것이 필경은 쾌함을 얻는 것인데...⁸⁾

퇴계는 遠望을 遠眺라 하고, 그것은 마음의 쾌활함을 얻고자 함에 있다고 했다.

이 원망과 원조의 경계는 조선조 사림들의 심미 거리이자 보편적 생활 의경이기도 하다. 이 의경은 원망의 관조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근경에서 오는 산수의 奇妙와 曲折한 경계를 형상화해서 이루어진다.

Ⅲ. 遠望의 산수자연과 그 표현 원리와 미적 성격

퇴계와 율곡의 이러한 심미 의식과 심미 거리로서의 ‘遠’은 莊子에 연원을 두고 있다. 원은 원래 逍遙와 遊와 같은 개념이다. 이로 보면, 장자의 소요유의 의미와 일치한다.

逍遙의 字意는 遊 혹은 自適의 뜻이고, 遙의 字意는 遠이니, 逍遙는 遠遙 혹은 逍風을 뜻한다.

8) 민족문화추진회, 『국역퇴계집』 I, 경인문화사, 1976, 645쪽. ‘宗粹曰登望須秋天霜後或積雨新晴之日乃佳周太守阻雨五日得晴而即登故能遠眺余默領其意以爲始阻鬱者終得快…’

소요는 자기가 현재 몰두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탈 초월하여 판단자가 종래의 가치판단태도를 중지하는 것이다... 이 逍遙의 目的은 任自性과 從自然에 있다.⁹⁾

소요의 목적은 입자성과 종자연에 있다 함은 是非, 利害, 현실에서 초월하여 자연과 합일하는 데서 그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자연과의 합일을 위해서는 현실적 구속에서 벗어난 자아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그 요구의 충족은 원망에서 이루어진다.

원망에서 感得된 심리는 審美眼의 주체가 된다.

...『세속을 초월하고 속세를 끊기』 위해서 곧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산수로 전향하는데, 이렇게 하여 산수화가 출현되었다. 한 사람이 산수를 접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속세의 정에서 멀어지고, 그리되면 잠시 정신적 해탈과 해방을 맛보게 된다. 그러나 산수는 결국 하나의 형질을 가지고 있고, 형질 자체는 일종의 한정된 것이므로 한정된 상태 중에서 정신은 완전한 자유로움을 얻지는 못한다. ... 인류의 심령이 요구하는 초탈과 해방도 시선의 원에 따라서 무한 가운데로 향하게 할 수 있고, 무한 속에서 인류가 예술에게 요구하는 정신의 자유해방이라는 최고의 사명을 달성하게 된다.¹⁰⁾

원망은 세속을 초월하고 속세를 끊기 위함이 그 목적이므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수로 전향하게 된다. 거기에서 정신적 자유해방을 맛보게 되는데, 산수의 형태 자체는 일종의 한정된 것이므로 한정된 상태 중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원에 의해서 실현할 수 있다. 이 원의 관조 방식은 인간이 예술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정신적 사명을 이루게 될 수 있다는 것

9) 구분명, 『중국사상의 원류체계』, 대왕사, 1982, 255쪽.

10) 서복관 (권덕주 외 역), 『중국예술정신』, 동문선, 1990, 390-1쪽.

이다. 이 원의 관조 방식은 중국의 郭熙인데, 산수에 대한 관조 방법을 취하고 산수화를 그림에 있어 기본적 이해로써 중요시 한 것이다.

이러한 의경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그는 三遠法을 제시했다.

산에는 삼원이 있다. 산 아래에서 산꼭대기를 쳐다보는 것을, 고원이라 부른다. 산 앞에서 산 뒤를 두루 보는 것을, 심원이라 부른다. 가까운 산으로부터 먼 산을 바라보는 것을, 평원이라 부른다. 고원의 경색은 청명하고, 심원의 경색은 중회하고, 평원의 경색은 명이 있고 회가 있다. 고원의 지세는 돌출하고, 심원의 경색은 중첩되며, 평원의 경색은 층층하고도 표표하며 묘묘하다. 그 인물이 삼원이 있으면, 고원은 명료하고, 심원은 세쇄하며, 평원은 층층하다.¹¹⁾

삼원의 원의 표현은 주관적인 측면과 외재하는 자연의 무한함을 원으로 조화 통일시키는 이론이다.¹²⁾

또한, '사람을 멀리서 보면 눈이 없고, 물을 멀리서 보면 파도가 없음을 발견하였고, 산수를 가까이 보는 것은 모호하여 판단하기 어려우며, 멀리서 바라봄은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다.¹³⁾ 遠人無目 遠水無波는 원망에서 오는 경지이고, 人有目 水有波는 近看에서 오는 산수경이다. 원인무목 등을 주장한 것은 산수의 한정된 상태 중에서 완전한 자유로운 심리 상태를 이야기 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한의 산수 형태에서 무한으로 비약해 간 경계 속에서 상자연 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풍격, 고담과 냉담을 높이 평가한 퇴계는 창작에 있어서 표현 기교에 빠지

11) 郭熙, 林川高致 山水訓 山有三遠 自山下而仰山顛 謂之高遠 自山前而覈山後 謂之深遠 自近山而望遠山 謂之平遠 高遠之色清明 深遠之色重晦 平遠之色有明有晦 高遠地勢突兀 深遠之色重疊 平原之色沖融而飄縹渺妙 其人物之在三遠也 高遠者明了 深遠者細碎 平遠者沖澹, 『중국미술사대강』, 百選文化社, 305쪽 재인용.

12) 智順任, 『산수화의 이해』, 一志社, 1993, 181쪽.

13) 郭熙, 앞의 책, 遠人無目 遠水無波 近看要模糊難辨 遠望則清晰可見

는 것을 항상 경계했다.

홀륭한 곡식은 돌피 익은 아름다움을 받아들이지 않고 嘉穀莫用稊熟美
 가는 티끌도 오히려 거울 닦아 산뜻하게 함에 해로우니. 纖塵猶害鏡磨新
 정에 지나친 시어는 모름지기 깎아버리시지요, 過情詩語須刪去
 노력하여 공부해서 저마다 날로 새로울지니. 努力工夫各日新
 『贈李叔獻』

과정시어수산거의 '정에 지나친 시어는 모름지기 깎아버리시지요'라는 말은 사물의 외형에 집착하다 보면 사물의 자연성을 잃게 되고 산수 공간이 단순히 遊目的 놀이 공간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이 選集에서 선정한 시는 沖澹蕭散을 위주로 하고 수식을 일삼지 않는 시들이기 때문에, 自然스러운 가운데 깊은 妙趣가 있어서, 그 古調古意를 아는 사람이 적다. 唐·宋 이후 여러 작품의 品格들이 혹은 옛날에 미치지 못하나, 그 사이에 近體詩가 있어서 대개 雕琢의 기교가 없고 저절로 聲律에 맞았다. 그러므로 병행하여 선정하였다. 이 選集을 읽으면 그 淡泊함을 맛볼 수 있고...¹⁴⁾

퇴계와 율곡이 말한 '過情詩語須刪去'와 '無雕琢之巧'는 시어 선택과 표현에 있어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는 원망을 놓치고 近看의 山水景에 사로잡힌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산수의 전체 氣勢와 造化의 靈妙함을 놓쳤기 때문이다. 근간에 집착하게 되면 주관적 감정의 이입으로 사물의 자연성을 해치게 된다. 퇴계와 율곡은 각기 矜豪放蕩 褻慢戲狎 移情蕩心으로 흐르게 되어 화미와 조탁의 기교를 부정했던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자연성과 자연

14) 李珣, 『精言妙選』, 精言妙選總序, “元子集曰 此集所選 主於沖澹蕭散 不事繪飾 自然之中深有妙趣 古調古意 知者鮮矣 唐宋以下諸作品格 或不逮古 間有近體而皆無雕琢之巧 自中聲律 故竝選焉 讀此集 則味其淡泊…”

의 본래성이 조화통일 될 수 없고, 주관적 감정과 인식론으로 사물을 한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앞의 Ⅱ.遠에서 논의한 작품이 퇴계와 율곡과 같은 심미의식에서 형상화된 작품들이다. 다시 고산의 작품을 들어 표현 원리와 미적 성격을 논의하고자 한다.

잔 들고 혼자 안자 먼피흘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움이 이리흐라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몰내 묘하 흐노라 (漫興 3)

孤山은 당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흥취와 감흥을 드러내었다. 먼 피를 바라보는 순간 현실에 대한 煩憂한 생각들이 일시에 사라지면서 흥을 겨워하고 있다. 먼 피를 바라보는 현실의 질곡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원망 중에 떠오른 산의 유연한 모습에 대응하게 되고 먼 피를 만나는 순간 현실에서의 知友와 만남보다 더 깊고 넓은 有情의 세계를 창조하고 스스로 즐기고 있다. 또한, 고산의 속계를 벗어난 虛靜하고 悠然한 심리 상태를 읽을 수 있고, '그것은 自然愛이면서 人間忠實이다. 말씀도 웃음도 아닌 것, 그것은 먼 피의 유연이고 동시에 먼 피를 바라보는 마음의 유연이다.'¹⁵⁾ 이는 원망에서 생성되는 寧靜한 심리에서 조망된 경치이고 그것을 형상화하여 恬淡의 미적 세계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IV. 結論

조선조 士人들은 산수자연에 대한 관조 방식으로 遠望을 중시하였다. 이

15) 崔珍源, 고산연구회, 『고산연구 제 3집』, 『山中新曲과 金鎖洞記의 관계』, 151-2쪽.

원망은 산수의 형상으로 道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자, 도의 경지로 들어가는 관조 방식이다. 遠은 물리적인 거리이자, 심미 거리이다. 산수 원망은 관조자로 하여금 현실의 구속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虛靜하고 寧靜한 심리를 갖게 되고, 山水物象의 有限性을 無限의 世界로 비약케 하고, 천지자연의 造化를 感得케 된다. 이의 산수 형상은 세속과 초월한 경지에서 산수와 인생 양쪽 감정이 서로 합일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자연 속에서 더 넓은 유정의 세계를 창조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원리로 三遠法을 삼는다. 이 표현법은 유한의 세계에서 무한으로 비약하기 위한 것으로, 각 물상들의 외형의 섬세한 표현과 기교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하고 자연스럽게 형상화하게 된다. 기교에 의존하게 되면 사물의 외형에 한정되기 일쑤이고 인식으로서 사물이 한정되기 때문에, 유한한 외형에의 집착과 기교를 벗어나야만 원망의 경계를 형상화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서 恬淡의 風格이 성립한다. 緣담은 인생을 안정하게 하고, 인간의 자연성과 자연의 본래성과의 조화를 이루는 데서 오는 미이다.

<참고문헌>

孤山硏究會, 『孤山硏究』, 第3輯, 孤山硏究會, 1989.

金垞五, 『詩論』, 三知院, 2008.

陶南學會, 『陶南學報』, 第十八輯, 월인, 2000.

慕山學術硏究院, 『慕山學報』, 第10輯, 正覺堂, 1998.

崔珍源, 『韓國古典詩歌의 形象性』, 成均館大 大東文化硏究院, 1996.

_____, 『고전시가의 미학』, 월인, 2003.

徐復觀 (權德周 外 譯), 『중국예술정신』, 東文選, 1990.

袁行霈 (鄭珉 外 譯), 『中國詩歌藝術硏究』, 亞細亞文化社, 1990.

劉偉林 (沈揆昊 옮김), 『중국문예심리학사』, 東文選, 1999.

葉朗 (李鍵煥 譯), 『중국미학사대강』, 百選文化社, 2000.

<Abstract>

Viewing afar of Nature and Aesthetic Character in Sijo

Choi, Dong-ko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factors such as one's sight of viewing afar, expressional principles, and basic aesthetic category, which are treated importantly by the poets of the Joseon Dynasty era in appreciating nature. 'Afar' of the viewing afar is actual distance and aesthetic distance at the same time. Viewing afar is to find geographical features, depth, and details of a mountain, seeing the whole nature at a high place. Also, it can make possible escape from the external limitation of nature and get mental superiority and enhancement. Ultimately, viewing afar is to find out everlasting change of the nature and reason of natural creation.

One's sight in viewing afar makes an appreciator's mind empty and calm, and it makes chance to harmonize human with nature. Viewing afar is to unite human nature to naturality beyond realistic value, idea, and artificiality. The mind from viewing afar has peacefulness and it is a state of serenity without any secular atmosphere. Viewing afar is an eye for beauty to leap toward an endless free state from narrow sight about objects. It rejects modification and technics in achieving a world of harmony. It means that objects should not be restrained by human's recognition. There are three expressions, which are high, horizontal, and transcendental viewing afar. The aesthetic category and beauty of peaceful mental state are realized by the expressions. The peaceful mental state makes peaceful mind from realistic conflicts and makes us experience a profound reason of nature.

Key Words : Nature, Afar, Viewing afar, Broad-minded, Emptiness and Calmness, Technics, Aesthetic Category, Peaceful Mental State

이 논문은 2008년 11월 30일(월)까지 투고 완료되어,
2009년 1월 4일(일)부터 1월 14일(수)까지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고,
2009년 1월 22일(목)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